

민주 '한명숙 재판' 기대반 우려반

무죄판 수도권 대박·유죄판 도덕성 먹칠

재판 영향줄까 서울시장 경선 여부 결정 못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에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구도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일인 4월9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을 비롯한 정부 여당을 향한 국민적 '역풍(逆風)'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한명숙 카드'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주류 측은 "유죄 판결이 나면 오히려 더욱 거센 역풍이 불 것"이라며 정면 돌파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론 내부 반발로 '한명숙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검찰이 '골프빌리지 무상 사용과 골프비용 대납'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도덕적으로 상처가 나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며 한 전 총리를 옹호하는 성명을 냈지만 당 일각에선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고, 한 전 총리 서울시장 공천에 문제가 생기면 지방선거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 일각에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지만, 당은 재판에 영향을 줄까 우려해 선거와 관련된 공식적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이날 현재까지 서울시장 후보 경선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공천 심사를 위한 서울시장 후보 공모를 지난 17~18일로 예정했다가, 예비후

보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이 경선 여부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후보 추대' 기류가 깔려 있어 일단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나경원 의원 등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날 주택·보육·교육정책을 내놓으며 뜨거운 경쟁을 벌이는 것과 비교된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계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후보 간 정책경쟁과 경선과 당과의 합당 질문에는 그냥 웃겠다. 소이부담(笑而不答·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음)으로 답하겠다"고 일축했고, 기호 2번으로의 단일화 여부에는 "민주당의 입장으로 접수하겠다"고 가볍게 넘겼다.

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것. 김진표 최고위원과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후보들이 현 지사인 김문수 경기도사와 여론 지지도 조사에서 크게 뒤지고 있어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하지만, 인지도 면에서 유 전 장관의 도전이 녹록지 않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참여당과 합당과 단일화 변호로 기호 2번을 유 전 장관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참여당과의 합당 질문에는 그냥 웃겠다. 소이부담(笑而不答·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음)으로 답하겠다"고 일축했고, 기호 2번으로의 단일화 여부에는 "민주당의 입장으로 접수하겠다"고 가볍게 넘겼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수는 치지만...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5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뉴민주당 정책설명회에 참가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재판' 이번엔 그린피 논란

검찰 "미리 계산된 것 아니다"

한측 "세세한 부분 반응 안해"

광역권 전 대한통운 사장이 골프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바람에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한명숙 전 총리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돼 한 전 총리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일행은 비용이 대납됐다고 주장한 2008년 11월 오전 8시경 골프를 시작해 늦어도 오후 1시쯤 끝났는데 비용이 입

금된 시간은 이로부터 한참이 지난 오후 5시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라운드를 끝내고 서너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린피가 계산된 셈이다.

검찰은 전날 공판에서 평소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졸권 주장해온 한 전 총리가 광 전 사장의 회원권으로 수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판부에 증거를 신청했다.

한 전 총리가 제주에 있는 광씨 소

유의 고급 골프빌리지를 2008~2009년에 28일간 무료로 사용하면서 3차례 골프를 쳤고 이 중 한번은 광씨가 그린피를 대납했다는 검찰 조사 내용도 알려졌다.

이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광씨 측이 아무런 양해나 동의 없이 골프 비용으로 30여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 미리 계산해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대위

관계자는 '라운드 종료후 그린피 입금'이라는 검찰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반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전날 공대위가 "강동석 전 장관이 소개한 문도에서 숙박을 한 적은 있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 "진혀 아는 바 없는 내용"이라고 비서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

"여수엑스포·F1 성공적 마무리 짓겠다"

박준영 지사 3선 출마 공식 선언



박준영 전남지사가 25일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엑스포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J프로젝트 등 전남의 대형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5년 9개월 동안 전남이 한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도민과 함께 했다"면서 "친환경농업과 신재생 에너지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전남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산업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기업을 유지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1기 도정이 녹색을 바탕으로 미래전남의 기반을 구축했다면 2기 도정은 이를 활용해 더 많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전남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도 미래

를 설계하는 전남을 꼭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논란이 된 '당원 명부'와 관련 "전남도당 위원장을 1년 6개월간 수행한 분이 후보인 상황에서 일부 당원들이 명부에서 누락이 됐다 는 호소를 해왔다"면서 "당원이 정당

하고 공정한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중앙당에 진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관 경선에 대해서도 그는 "체육관 경선은 당원이 후보를 뽑아 축하하고 본선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축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 후유증'으로 수도권에 모두 참여하기도 하는 부작용도 있다"면서 "이런 결과가 또 일어난다면 이번 지방 선거와 2012년 대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과 관련,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면서 "단지 영산강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어 2004년, 2006년 선거공약에도 넣고 과거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당 지도부의 고민도 이해하며 당에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지사는 26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다음주 선거사무소의 문을 연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며 지사 권한대행은 이계호 행정부지사가 맡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화갑·최인기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공천헌금 수수혐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2명으로부터 역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화갑(71) 전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최인기(66) 의원과 유덕열(55) 전 민주당 조직위원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5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

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전남도의원 양모(65)씨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의원은 2006년 5월 당시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전 전남도의원 박모(66)씨에게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3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박씨와 양씨가 낸 6억원은 중앙당 계좌에 입금돼 지방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정동영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헌소

한나라 "광역단체장 전면 경선 원칙"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5일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트위터(단문메시지 송수신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선거법 93조는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우려된다"며 "선거법 93조를 활용해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학·자연 등으로 폐쇄된 사회를 수평적인 열린 사회로 만들고 있다"며 "선거법 93조는 이런 관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포함된 국민청구인단에는 민주당 이종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일반 시민 등 모두 147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25일 "광역단체장 경선은 4월 중순 시작해 늦어도 5월초까지 끝내려 하는데 가능한 4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광역단체장 경선 원칙과 일정을 보고했다.

정 총장은 "광역단체장은 전면 경선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권역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투표 80%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국민 30%) ▲여론조사 20%로 결정되고, 서울시장 후보자는 최소 2회 이상 권역별 경선을 통해 선출하게 된다. /연합뉴스

국/비/지/원 전기소방

자격취득 중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계분야))

❖ 실업자 및 계좌제
- 대상 : 실업자 야간대생 등
- 현재 접수 중, 선착순 00명
6개월, 주 5일, 1일 4시간(오전반, 야간반)
※ 본원 방문하여 상담접수 바람

❖ 직장인 과정(국비 100% 환급)
❖ 산재장애인(무료)훈련수당 지급
❖ 특전 - 병원, 호텔, 빌딩, 아파트 등 전기관리직 및 전기 전문 업체 취업보장

병역 특례 군 미필자, 군면제를 받는 병역특례 업체 / 취업알선(입영연기100%)

문의 ☎ 374-2404, 373-1959
건설전기기계학원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無,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담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